

# 인류의 일상을 바꾼 냉장고의 역사와 혁명

## 필요의 탄생

헬렌 피빗 지음, 서종기 옮김

지난 2015년 영국 총선에서 화제가 된 가전제품이 있었다. 바로 냉장고다. 당시 시사평론가들과 대중은 방송에 공개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가족의 냉장고와 안의 내용물에 관심을 드러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바로 냉장고는 “사회적 지위와 생활 수준은 물론 감각이나 브랜드 취향, 쇼핑습관” 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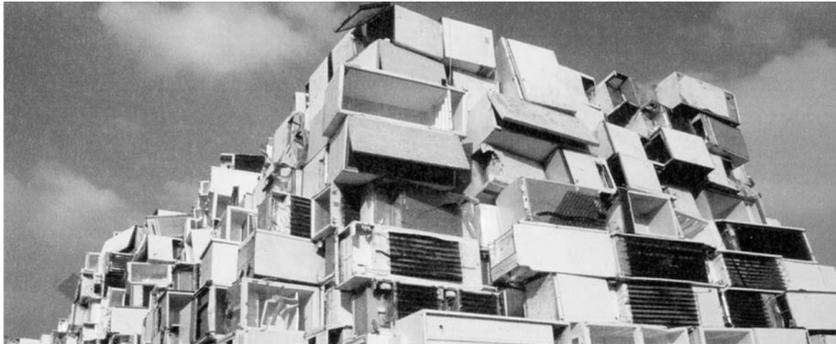


냉장고는 가전제품 가운데서도 중요한 필수품이다. 전체 가구 40%를 차지하는 1인가구에서 가정용 전화기는 거의 사라졌고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 텔레비전을 없애는 가정도 늘고 있다. 코인세탁방이 등장하면서 세탁기가 없는 가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냉장고가 없는 집은 거의 없다. 냉장고의 역사를 통해 ‘필요’를 조명하는 이색적인 책이 출간됐다. 런던과학 박물관 최고 인기 도서인 ‘필요의 탄생’이 그것. 저자인 런던과학박물관 큐레이터 헬렌 피빗은 인류의 일상을 바꾼 ‘냉장고 혁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했는지 탐구한다.

최근에 이슈로 부각된 용어 가운데 ‘콜드체인’이 있다. 이전에는 잘 쓰이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저온 유통 체계’를 뜻하는 콜드체인이 익숙해졌다.

10여 년 전에도 마케팅 영역에서 회자된 적이 있다. 크래프트 맥주(수제맥주) 열풍이 콜드체인을 타고 전 세계로 퍼졌다. 빛과 열에 약한 맥주는 온도 유지가 무엇보다



21세기 초 영국의 서더햄에 만든 냉장고 산. 이 장면을 찍을 당시 새로운 EU법안에 따라 재활용 공정 등을 필요로 하는 냉장고 수가 7만대를 넘었다. <푸른솔 제공>

중요하다. 미국의 소규모 수제맥주회사들이 콜드체인 유통을 도입하면서 ‘변형되지 않는 진정한 맛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국내 수제맥주회사들도 콜드체인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다. 수제맥주시장이 2013년 93억 원에서 2019년 88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사실 식품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은 냉장 기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냉장고에는 시대의 소망과 욕망, 사회문화적 맥락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1830년대부터 1930년대 사이 냉장기술 특허신청이 넘쳐났다. 기계식 냉장기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했다.

책은 모두 6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근대 냉장 기술이 시작된 18세기와 19세기 유럽을 다룬다. 2장에서는 얼음의 수요가 늘면서 얼음 만드는 기술도 발달하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차가운 얼음을 만들기 위한 뜨거운 경쟁이 콜드체인의 역사를 만들었다.

3장은 가정용 냉장고의 개발사가 주 내용이다. 1960년대 미국을 위시한 각국에서 냉장고는 필수품이 됐다. 냉장고에 얽힌 사회적 변화와 욕구를 조명하는 내용도 있다. 4장에서는 냉장고가 주방에 들어오면서 건축은 물론 주부의 가사 노동이 어떻게 감소했는지 분석했다.

5장은 냉장고가 지금과 같은 형태와 구조를 갖게 된 역사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100년의 냉장고 역사는 내외부 소재를 고르고 소비자 필요에 맞는 외관, 취향, 냄새, 소리를 찾는 여정이었다. 6장은 냉장고 발달과 요리 변화를 다룬다. 제조사들이 판매 촉진을 위해 음식 제조법을 다른 요리책을 배포한 사례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7장과 8장은 각각 냉장고와 인류의 상관관계, 냉장기술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룬다. 과연 앞으로 냉장고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까. <푸른솔·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나이의 비밀=독일의 노화 연구가인 스펀 필펠은 우리가 역사상 최초로 늙음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누리게 됐지만 노년에 대한 선입견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과학, 사회,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나이의 숫자가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없는지, 노년에 대한 케케묵은 자화상이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 지 등을 알려준다. <청미·1만6500원>



▲책상 생활자의 요가=소설가 최정화의 요가 에세이다. 생각이 너무 많아 가위 바위보조차 쉽게 하지 못했던, 근육이 아닌 거의 없었던 저질 체력의 저자가 요가와 명상을 하며 찾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한다. 요가의 1·2단계, 명상을 돕는 장비들, 마음이 흔들릴 때 할 수 있는 요가 자세 등을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쉽게 설명한다. <창비교육·1만2000원>



▲최고의 교실=미국 최고의 학교로 새롭게 주목받는 ‘서밋스쿨’의 교육법을 담은 책이다. 서밋스쿨에서는 각각의 아이에게 맞는 학습 방법과 평가 방식을 고민하고 적용하며, 아이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4가지 과정인 프로젝트 기반 학습, 자기주도, 깊은 사고, 협업하기를 중요하게 다룬다. 아이들이 높은 성적을 얻고 사회

적인 성공과 행복한 인생을 성취하도록 돕는 방법을 소개한다. <더난출판·1만7000원>

▲쌀 재난 국가=한국 사회는 어떻게 불평등해졌을까. 저자인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 뿌리 깊은 불평등의 근원을 벼농사에서 찾는다. ‘쌀’ ‘재난’ ‘국가’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고대국가에서부터 현대 지구촌 사회의 코로나 팬데믹과 복지국가의 역할까지, 오늘날 한국 사회에 드리운 벼농사 체제를 분석해 보여준다. <문학과지성사·1만7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펭귄을 사랑해야 하는 10가지 이유=펭귄은 느리게 뒤뚱뒤뚱 걸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재빠른 다이빙 선수로 변신한다. 추운 날에는 서로를 꼭 껴안아 주면서 체온을 유지하기도 한다. 책은 펭귄의 10가지 특징과 생태 등을 소개한다. 또, 펭귄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며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알려준다. <보릿빛소어린이·1만2000원>

을 보여 자신이 만들고 싶은 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무심히 흘려보냈던 시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그 소중함을 느껴 보자는 의도가 담겼다. <노란상상·1만원>

▲시간을 굽는 빵집=함박눈 가득 팥도르, 짜릿한 첫 골 숏 도넛, 이 빠진 날의 옥수수 스크, 두근두근 짝사랑 케이크... 시간을 굽는 빵집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의뢰인들이 방문한다. 주인아저씨를 도와 빵을 만드는 만길은 수많은 의뢰인

▲모네의 정원에서=‘빛은 곧 색채’라는 인상파를 대표하는 화가인 모네의 일생과 그가 아낀 정원 이야기를 그림과 글로 선 보인다. 노르망디 바닷가에서 물에 비치는 다채로운 빛에 푹 빠진 어린 시절 모네 이야기부터 예술 아카데미 재학 당시의 이야기, 모네에게 예술적 영감을 준 뮤즈이자 그가 사랑한 첫 번째 부인 카미유와의 러브스토리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았다. <플랫·1만3000원>

# 모두가 사랑한 화가... 고흐의 불행한 삶과 빛나는 작품을 만나다

## 우리가 사랑한 고흐

최상운 지음

프랑스 파리 외곽 오베르 쉬르 우아즈는 빈센트 반 고흐가 ‘마지막’을 보냈던 곳이다. 고흐의 그림이 그려진 기차역 지하도로 들어서면 ‘고흐 월드’에 입장하는 기분이 드는데, 그가 권총자살을 한 라부 여인숙, 그림에서 만난 오베르 교회 등은 그 시절로 우리를 데려가는 듯하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의 배경이 된 밀밭을 지나면 작은 공동묘지다. 고흐 곁에는 그의 영원한 후원자였던 동생 테오가 나란히 누워있다. 고흐가 죽은 지 5개월만에 형을 따라가 버린 테오를 생각하면 ‘운명’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가 자살한 여인숙의 너무나 좁은 방에 발을 들여놓으면 사람들은 기어코 눈물을 흘리고 만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37세에 세상을 떠난 반 고흐는 짧은 여정 동안, ‘최초의 진정한 유럽인’으로 불릴만큼 유럽의 여러나라와 도시에 살았다. 그가 살았던 곳은 약 28곳으로 알려져 있다.

살아 생전 단 한점의 유화(‘빨간 포도밭’)를 팔았던 불행한 화가, 정신병으로 자신의 귀를 잘라 버리고 결국은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한 불행한 남자, 반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삶과 작품을 만나는 책 ‘우리가 사랑한 고흐-고흐의 빛과 그림자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나왔다. ‘밀짚모자를 쓴 자화상’(1887)이 표지로 실린 이번 책은 ‘나를 설레게 한 유럽 미술관 산책’ 등을 쓴 예술여행 작가이자 사진 작가인 최상운이 2012년 출간한 ‘고흐 그림 여행-네덜란드·프랑스 산책’의 개정판이다. 저자는 이번 책에 영국과 벨기에를 추가했다.

“반 고흐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더 보태기가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라는 저자의 말처럼 반 고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 한명이고 관련 책자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또 다시 이 책을 들춰보게 만드는 건 역시 ‘고흐의 힘’이라 하겠다. 특히 고흐 작품 뿐 아니라, 그가 사랑하고 영향을 받았던

슬한 화가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다.

고흐 여행의 출발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다. 고흐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반 고흐 미술관’이 있는 암스테르담은 ‘고흐 그림 여행의 성지’다. 테오 부부의 아들 빈센트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린 ‘꽃이 핀 아몬드 나무’를 비롯해 ‘감자 먹는 사람들’ ‘까마귀가 있는 밀밭’, ‘해바라기’, ‘구두’ 등 명작들을 수도 없이 만날 수 있다. 더불어 바로 인근에 자리한 레이크스미술관에서는 그가 사랑했던 렘브란트와 페르메이르의 작품도 접하게 된다. 또 오테를로 크렐러 밀러미술관 역시 고흐 마니아들이 꼭 찾는 곳이다.

프랑스에서는 로댕 미술관 ‘탕기 아저씨의 초상화’, 오르세 미술관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을 만나고 ‘밝은 태양 아래 색채가 폭발하는 풍경을 그리고자 찾았던’ 아틀리에에서는 유명한 ‘밤의 카페 테라스’를 찾아간다. 이어 여정은 정신병을 앓던 그가 스스로 치료를 위해 찾았던 생 레미 드 프로방스의 요양원과 마지막 종착역 오베르 쉬르 우아즈로 이어진다. <샘터·1만85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